

그리스도 (마태복음 1:18-25)

오늘 예배당에서, 또 집에서, 타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단어이다. 수 많은 날이 있는데 예수님 오신 날이 가장 중요하다. 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으나 개인의 생일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언제 오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따진다. 원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데 지키냐고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내용이 중요하다. 주님이 오신 것이 중요하고 왜 오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오신 이유를 누리는 것이다. 누리면 증거가 나오고 결국은 증인이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유를 알고 믿으면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지옥을 견학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해질 것이다. 왜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걸어야 하는지, 지옥 한번 가보면 답 날 것이다. 영원히 구원 받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이것을 향하여 간다. 역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시나면 구원을 향해 간다. 과학으로는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 어디 가신게 아니라 지금도 팽창시키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계속 나오냐는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 가치있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 밖에 없다. 그것 전도하는 전도 선교 외에는 가치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머지 살아 가며 생기는 모든 일은 이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 전도해야 합니다. 라고 돈달라고, 남미끝까지 가야 하니 건강달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앞에게 말고 뒤에거만 기도하니 문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원이 뭔지, 그제 내게 들어와서 언약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나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 기도할 수 밖에 없다. 눈 열리는 날이 되기 바란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분이 누구신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나사에서 우주선을 우주에 올렸는데, 이것이 가다가 돌아서서 지구를 사진을 찍게 한 것이다. 그 사진을 보니 지구가 점 한 개만하였다. 수많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인 것이다. 그저 점 하나인 것이다. 그때 두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위에 70억이 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살곳이 많이 있어서 100억, 200억 살 수 있고, 안되면 바다 위에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이 수 없이 많은데...그러면서 이게 참 놀라웠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이다.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님이 손 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실때까지 6시간 걸렸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내게 들어와서 언약되면 응답이 된다. 기도보다 이것이 언약되는 것이 근본이다. 언약되면 이 자세가 가장 깊고 능력있는 기도가 된다. 그 사람은 기도 안해도 전보다 배 이상 응답 받는다. 처음 복음에 들어와서 경험 많이 했을 것이다. 나는 기도 안한다고 하나님께 선언한 사람이었다. 한 일년 이후에 복음을 진짜 알고 나서 회개했다. 그 때 이후로 응답이 완전히 다르다. 누림도 다르고, 눈 열림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다 다르다. 가슴에 있는 느낌이나 은혜가 다 다르다. 그 언약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원죄를 박살내셨다. 모든 저주가 원죄로부터 오는데,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사람은 당한 것 뿐이다. 사람은 결과지 이유가 아니다. 이유는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을 죽이려 내 아들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 모르면 신앙

생활이 가다가 만다. 원인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그 위에 있다. 그 중간에 원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안지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죄 때문에 걸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통과해서 사단까지 내려갔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죄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 내려오다가 중간에 멈춘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어떻게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는가? 뱀의 머리를 깨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죄의 문제 해결은 이미 끝났다.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으신다. 남은 것은 무엇인가? 뱀이 아직 안 죽었다. 마지막날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무저갱에 갈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매일 뱀의 머리를 깨야 한다.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 기도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때 모든 응답이 다 온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바로 깨버린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다. 의가 권세이다. 사단에 대해서. 죄는 사단의 밤이다. 의가 되면 뱀의 머리 박살이다. 그리고 이 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고 누리고 선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하면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된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된다. 경제 문제도 여기에 있다. 자녀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기도로. 이것이 언약이다. 뱀의 머리를 깨고 원죄의 저주를 박살 내는 것이 언약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전도자를 돕는 것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만큼 복음 전하고 사람을 저주에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알게 된다. 조금 표현하면 참된 기도이다. 늘 나의 기도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다. 참된 기도는 언약을 누리는 기도, 그것으로 전쟁을 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 참된 기도를 말하면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을 모르면 그냥 기도한다. 나중에 복음에 눈이 열리면 나중에 깨닫는다. 이래서 방황했구나. 나도 예전에 아침 저녁으로 한시간씩 기도했다. 알고 보니 언약 잡고 하면 되는 것이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복음을 알고 나면 가만히 그냥 있어도 기도가 된다. 이 기도를 아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물론 근본 내용은 그리스도이다. 얼마나 바꿀것인가는 다음 문제이다. 복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다. 당연히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먼저 바꾼다. 바꾸는게 아니라 바뀐다. 복음은 원죄를 뒤집어 버린다. 당연히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복음이 있으면 해방된다. 오히려 사단 꺾어버린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된다. 인생이 바뀌고 자기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 주위의 사람들도 바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당연히 이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 임한다. 건강, 자녀, 경제, 전도, 선교 모든게 다 바뀐다. 복음을 가진자,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자 다 바뀐다. 인생이 작품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심하다는 생각했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 마스터 키라는 것이다. 글썄 싶었다. 왜냐면 나의 복음은 그냥 믿고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믿고 구원 받았다는 생각만 가진 사람이었다. 누림이 없으니 증거를 못 봤다. 증거가 계속 보이는 것 같으면 될 것이라는 소망이 보인다. 그리고 그 증거가 지속되면 정말 다 되겠다는 믿음이 들어온다. 나는 믿고 구원 받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증거를 못 봤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기도 중단했다. 응답도 안되는 기도를 내가 왜 하겠는가? 복음을 첫째는 바로 알아야 한다. 간단하다. 그것을 그 다음에 누려야 한다. 고백을 하

고 언약으로 잡고 선포해야 한다. 그러면 인생 바뀐다.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것이 정상이다. 문 안 열리는 것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처음에는 이런 말 들으면 그러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일 아침에 백만불 생기는 거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문 다 열린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 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았다. 세상적 생각이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조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생각이 거의 맞춰졌다. 이제는 백만불이 생각 안난다. 앞으로 살다 보면 더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 생각은 백만불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치유라고 한다. 치유 안되면 집중이 안된다. 오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오직이 안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한다. 분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것을 고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의 문을 연다. 그런데 땅의 문도 다 열린다는 것 아닌가? 일단 믿어야 한다. 그 다음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증거 나올 것이다. 증거 나오면 어떻게 되냐?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것이 증인이다. 약속은 다 해냈다. 완성되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할 필요도 없다. 완성이다. 끝. 남은 것은 내가 잡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잡고 사느냐? 아니면 그 옆에서 예수님 부르면서 사느냐.. 멀리 있지도 않고 옆에 있다. 오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언약으로 잡고 조용하게 혼자서 잡아야 한다. 결심하는 것이다. 뜻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살겠다고. 혹 잘 안되는 사람도 영적 상태가 그런것이니까 그 분도 답은 그리스도인 것이다. 마음이 자꾸 바뀌고 치료되고 기도가 되고 언약이 되고, 나의 기도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기도제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다 매인다고 하였다. 이것이 왜 실제로 안되냐면 복음이 100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렇게 되면 뭔가 다르게 들어와 있다. 이것을 완전 막을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들어오던지 말던지 복음이 100이 되면 끝이다. 복음이 100. 다른 것 필요 없다. 오직. 틈 생겨도 괜찮다. 오직.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밀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정복한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다. 문제 박살이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박살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다. 와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박살이다. 완성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진짜 믿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생각 안해야 한다.

1.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말하고 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 왜냐면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그런데 천사가 그것은 성령으로 된것이라고 말했다.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은 초음파 하지만 그것도 바로는 모른다. 아들을 낳을테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올 자다. 자기 백성이다. 사단의 백성이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이다. 태중에 있을 때 끝난 것이다. 이유는 모른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 안했다. 에서는 자기 백성 아니니까. 한 배 안에 있어도 그렇다.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아도 그래도 아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이다. 하나님의 죄가 아니고. 이 문장 하나가 지고도 굉장한 신학이 들어 있다. 이것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 이사야 7:14절을 말씀하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진짜 처녀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다.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아니고 아기 하나님이다. 마리아는 모친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조물이다.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마리아도 지옥가는 것이다. 예수님 낳았다고 해서 천국 자동으로 가는 것은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뿐이다. 예수를 그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된다. 그리고 이것이면 완전하고 절대 안 바뀐다. 이 주님은 죽으러 오셨다. 죽음으로 완성하신 것이 삼직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다. 사단이 환장할 일이다. 이유는 한 개 뿐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다. 육신 인생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냥 영혼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육신인생도 저주에서 나오는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다. 노예에서 해방이다. 노예되어있는 것들, 돈이고, 문제들 잡혀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해방될 수 있는 답이 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다.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당연히 반드시 이긴다. 예전에는 사단 많이 무서워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어서 많이 불안해했다. 반드시 이길수 있다. 지는 법은 없다. 반드시 노예에서 해방된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해결되고 해방된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내가 너를 저주에서 건지고 반드시 해방시킨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이다. 증인되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육신적 증거를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된다.

사단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마4장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에게 이끌려 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바로 공생애 시작에 사단먼저 해결한 것이다. 더 이상 내 백성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 시험당했으니까. 이것을 누리 는 비밀, 말씀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길수 없다. 이 언약 잡기 바란다. 뱀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이 언약을 잡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내 책을 주니 참고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이다. 니가 아무리 떠나려 해도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니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선지자다.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날마다. 때마다. 다시 고백하고 잡아야 한다. 새로 힘을 얻어야 한다. 박살 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6:33이다. 죽으시고 피흘리심으로 완성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18 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모든 언약 완성되었다. 마태복음 16:16. 주님은 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이것 말했는데, 내가 너를 이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로 모든 문 다 열라는 것이다. 내가 약속한 거 다 누려라. 증인되라. 땅끝까지. 이 약속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으로 하신다. 그래서 약속 그대로 되어질테니, 그 성취를 언약으로 잡아라.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독보적 권세를 가진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뒤집는다. 그래서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힘이 있다. 그 인생 아무도 못 막는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말씀 받아야 한다. 들어오자마자 말씀은 권세요 능력이 된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승리하기 바란다. 주님은 모든 삶의 표본이고 멘토이다. 그리고 언약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라고 평생 가장 의미있는 성탄이 되기 바란다.